

데스크 시각

너희가 컬렉션을 아느냐?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언제부터가 제주도는 미술의 섬으로 불린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각각각색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볼 수 있으니 그럴 만하다. 제주의 역사를 보여 주는 자연사박물관에서부터 동심을 설레게 하는 곰인형박물관 등 줄잡아 90여 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기자는 제주에 대한 이러한 세간의 좋은 평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제주현대미술관이나 이종섭미술관 등 색깔 있는 미술관도 있지만 ‘컬렉션’(소장품)이라고 부르기에 좀 딱딱은 곳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를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편견을 여지없이 깬 주인공은 본태박물관과 아라리오 뮤지엄 시네마. 그중에서도 ‘본태의 형태’란 뜻의 본태(本態)박물관은 친환경적인 건물과 컬렉션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품이었다. 지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에 화제를 모은 곳이다. 지난달 중순, 미술관 입구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입장료가 성인 기준 1만6000원이나 하는데도 미술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관람객 물리는 본태박물관

1층 전시관에는 미술관 설립자인 이형자(재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 부인) 여사의 소장품들로 꾸며진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꽃상여와 꼭두장이’ 열리고 있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조선시대 상여와 꼭두 등 430여 점의 상례 유품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했다.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자 일본 출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노란 호박’이 관람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두 평 공간에 영구 설치된 ‘점에 대한 강박-무한한 거울방’이었다. 박물관이 6억 원을 들여 구입한 이 작품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3차원의 세계에 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일으켰다. 국내에 단 1점뿐인 이 작품을 보기 위해 근대 박물관이 2~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탈남 제주 구도심에서 만난 아라리오 뮤지엄 시네마는 비엔날레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옛 탐동 시네마 극장을 리모델링한 전시장에는 앤디 워홀의 ‘메릴린 먼로’와 배의 길이가 21m나 되는 인도 작가 수

보드 굽타의 ‘배가 신고 있는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 등이 설치돼 시선을 압도했다. 지난해 아라리오 뮤지엄의 제주 분관으로 개관했지만 1년 만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은 컬렉션의 힘일 것이다.

광주행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 최근 무분별한 소장품 구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버랩됐다. 작품 구입 예산의 대부분을 지역 작가들의 미술 품에 할애하는 바람에 국내외 유명 작가나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미술관. 입장료가 500원밖에 하지 않는데도 시립미술관의 전시장이 한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으리란 생각이다.

‘삼성 리움’ 분관 유치 나서야

미술관의 위상은 컬렉션의 질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적인 컬렉션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근래 전국의 국공립미술관이 앤디 워홀, 토니 크랙, 고 김환기 화백 등 거장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무조건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만이 좋은 컬렉션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 해 평균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으로 1점당 수십,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나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소장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예항이나 비엔날레의 개최지인 광주는 미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빼어난 컬렉션이 부족하다. 비엔날레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곧장 전주 한옥마을이나 부산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발길을 붙잡는 볼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달 공식 개관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또 어떤가. 자체 컬렉션이 없다 보니 문화전당만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삼성미술관 리움 광주 분관(리움)을 유치하지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두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할 경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화려한 컬렉션을 광주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광주의 희망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와 리움 미술관 측은 ‘유직여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다. 그렇지만 국립기관인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등을 내세워 설득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경쟁력 있는 컬렉션은 곧 ‘문화 광주’의 미래다. 머뭇거리려 하등의 이유가 없다. /jhpark@kwangju.co.kr

社說

광양항,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도 밀리나

정부가 어제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 업클러스터항 및 동북아시아 자동차 환적 중심지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양항은 내년 개항 30주년을 맞지만 현재 물동량이 인천항에도 뒤져 3위로 밀려난 터여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광양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광양항 개항 당시부터 부산·광양의 이른바 ‘양항(兩港) 체제’ 구축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부산항은 물동량 갑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데 비해 광양항은 을 하반기 인천항에 추월당할 정도로 오그라든 것이다. 부산항은 화물량이 넘쳐나 대형선박 입항을 유도할 수 있는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47선석이 들어서 있다. 반면 광양항은 1선석만 유지하다 겨우 3선석 추가를 위해 내년 국비 108억 원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나 정부의 광양항 제도 약 플랜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오는 2025년까지 배후산단 연간 생산액을 현재 100조 원대에서 200조 원대로 끌어올려 ‘국내 최대 산업항’의 위상을 세운다고 한다. 또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해 활로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2조 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의 95%인 2조 2000억 원을 민간기업 투자로 충당한다고 한다. 예산 투입은 주로 인프라 구축에 쓰일 1조20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자 확보가 필수 불가결이다. 배후산단의 주력이 될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순조롭게 유치되고, 자동차 전용부두도 활기를 띠어야 광양항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침체된 광양항의 활로를 찾으려면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투자 기업을 직접 찾고,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이다.

광주 고교 배정 방식 다시는 혼란 없도록

해마다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이 또 바뀐다고 한다. 거리에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 추첨 배정 방식(선지원)의 폐지 등 2018학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광주시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7일 ‘고교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2안은 선지원을 20%로 줄이고 후지원을 80%로 늘리는 안이다. 3안은 선지원을 폐지하고 현행 후배정 방식으로만 실시하는 안이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교 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최종 입장과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잘못된 것을 바꾸

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내놓은 3가지 안에는 현행 고교 배정의 핵심 사안인 성적 근접 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고교 배정 방식은 상위교 교육감이 공사립 고교 간 학력차를 해소한 다며 2013년 도입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져 해마다 배정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기도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시의회 등에서도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부추킨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급기야 공청회를 통해 또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왕 광주시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다시 개선키로 했으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는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선호하는 안을 만들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은편칼럼

갈 길 먼 ‘성숙한 사회’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이 떠날 체미를 서두르는 가운데 나라가 매우 어수선하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우울한 연말이다. “아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침체,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불황”이라는 말이 있다.

인턴으로 고용됐다가 계약 종료와 함께 버려지거나 비정규직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모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금·은·동·흙 수저로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흙 수저로는 음악을 먹기 어렵고 풀러줄 수도 없다. 부모 도움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데다 가난이 대물림되

는 사회라는 열패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힘겨루기가 가슴을 부리고 있다. 고숙성장의 이면 에 감추어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방치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추위에 떠는 극빈층을 위한 복지정책보다는 공천관련 계파싸움이나 지역구 예산안 행거기에 열안이 되어 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은 매일 쏟아진다. 언변 좋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세상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언제나 무시되어 왔고, 남보다 더 크게 자각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고서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거나 집중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두 자기주장에만 목적을 높이는 세상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봐도 목청 큰 몇 사람의 답론을 지배하는 구조다.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말의 내용이 부실하니 목소리라도 커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사회이지, 문명사회가 아니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성숙한 사회다. 선진국이란 결국 성숙한 사회를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목소리를 낮추고 소통해가는 조용한 사회가 되길 염원한다.

찬바람과 함께 12월이 깊어가고 있다. 뒤돌아보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는 다짐은 간 곳 없고,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베투대머리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서로가 먹고살기에 벅찬 날들이었지만,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세밀이 되었으면 한다.

마침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기부 소식이 세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페이스북 주식의 99%에 해당하는 52조 원을 자선사업에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기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전망이자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이처럼 성공한 후엔 사회공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사회의

미성숙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를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기부는 결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심심일만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구세군 자선냄비가 차가운 거리를 녹여주는 파스한 겨울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선뜻 거액을 내놓고도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자의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주곤 하였다.

“행복은 돈보다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최근 여러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한 독일의 로버트 우스터 교수는 충고하고 있다. 이웃이 따뜻해져야 나도 훈훈해진다. 눈보라가 떨어지는 남극의 혹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펭귄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음주운전, 걸리면 얼마를 날릴까?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매년 이맘때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많아진다.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술자리 이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가벼운 생각에 무심코 이어지는 음주운전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경찰청도 해마다 연말연시 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라는 전쟁 아닌 전쟁을 매년 치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는 음주운

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 마다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방식을 병행한다고 한다. 또한, 야간뿐 아니라 낮시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더불어서 경찰은 그간 심야·새벽시간대(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그럼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낸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될까? 이에 대해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2~4잔(혈중 알콜농도 0.05%~0.10%미만)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벌금300만원, 면허정지 100일(음주 수치별 상이, 0.10% 이상은 면허 취소), 개별보험료 할증(3년 간 54만원)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소양교육(수강료 3만원), 직장 1일 휴가(연차수

당 삭감) 등을 종합해 ‘357 + a’가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a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벌 수 있었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4주 정도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면 사전 6사까지에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사고자의 경제적인 피해는 음주사고피해자 가족 등이 입은 피해와 상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음주운전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 또는 한 가정의 부모 한쪽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라. 가정 파탄 그 지대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벌금, 구속 등 형사적인 처벌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가족들은 그 사고로 인해 이룬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음주운전 사고자는 단순 살인범 보다 가징과 괴범이라 할 수 있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품는 연말연시, 한 잔이면 괜찮겠지, 늦은 시간이니까 단속하지 않겠지, 비가 오니까 단속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에 걸리거나 또는 사고를 낸 경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물론 다른 이웃의 인생까지 돌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만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 안 된다.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아닌 올바른 판단으로 모두가 안전한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 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